

시대별로 달라지는 의상스타일

1. 엘레강스 스타일(elegance style)

우아함, 고상함, 단정함 등 품위 있는 이미지를 지향하는 클래식한 감성의 패션을 말하고 넓게는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페미닌룩을 만드는 패션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페미닌풍의 클래식한 패션 감각을 말한다. 엘레강스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시티 엘레강스, 클래식한 엘레강스, 셔널 슈트(Chanel suit)와 같은 진품(오센틱의 클래식 슈트를 중심으로 하는 오센틱 엘레강스(authentic elegance), 아이비룩에 현대적인 엘레강스 요소를 더한 프레피룩, 남국 이미지의 엘레강스 등에서 나타난다.

엘레강스 스타일은 1950년대에 유행했는데, 대표적인 디자이너 크리스티안 디오르, 발렌시아가, 셔널 등이다. 특히 1947년 디오르는 뉴룩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쟁 중의 경직된 남성적인 복장에서 여성다운 우아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가는 허리, 부드러운 어깨를 표현하여 여성의 우아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프릴이나 레이스 등의 과잉 장식을 피하고 소재의 특성을 살려 신체가 가진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영화 “에비타”의 주인공인 에바 페론(Eva Peron : Madonna분)은 당시 디오르의 옷을 주로 입었던 실제 인물로 극중 마돈나의 의상은 그 시대의 의상을 재현한 것이다.

1954년 당시 디오르가 고풍스러운 면을 표현했다면 셔널은 새로운 면의 상징이었다. 해마다 라인이 다양하게 변하는 1950년대에 셔널의 옷은 매력 있고, 입기 쉽고,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것이었다. 대표적인 디자이너로는 크리스티안 디오르, 셔널, 피에르 발맨, 진 유어, 이브 생로랑, 존 갈리아노, 롤리타 램피카 등이 있다.

대리점 주가 알아야 할 섬유 용어 사전이라는 제하로 한국섬유신문에서 2002년 9월30일자 29면에 게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겠다.

· 그런지 룩(grunge look) : 그런지란 “지저분한, 불결한, 질이 떨어지는”의 뜻으로 1980년대 화려한 정통 하이패션에 대한 반발로 펑크룩 스타일에서 시작하여 영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되었다. 최근 룩그룹 “바나”, “필 잼” 등의 스타들의 무대의상으로 입고 등장한 후 그런지 스타일은 실용적이고 감각있는 젊은이들의 패션으로 변모하였다.

· 뉴룩(new look: 최신 유행 스타일이란 뜻, 특히 1947년 보행 크리스찬 디오르가 발표한 새로운 룩을 말한다. 살짝 들린 어깨선과 쏙 드렁간 허리선의 재킷이 바로 그것.

· 니치 마켓(nich market) : “틈새 시장”을 일컬음. 대중시장 붕괴후 세분화된 시장

· 니하이 삭스(knee high socks) :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올라오는 양말, 스쿨걸 룩에 잘 어울리는 니삭스는 큐트하고 깜찍한 소녀 품의 적격.

· 댄디 룩(dandy look) : 댄디는 멋쟁이라는 뜻으로 보통 남성에 대한 용어인데 여성 패션의 경우 그 복장이 남성적인 요소를 도입한 것을 말한다.

· 더플코트(doffle coat) : 거친 모직으로 만든 군용 코트에서 시작된 더플코트 단추대신 토글 장식으로 여미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

· 라글런 슬리브(raglan sleeve) : 목둘레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이음선이 잇는 소매, 디자인에 따라 변형이 많고 소매의 폭도 여러 가지다.

· 레트로 패션(retro fashion) : 레트로 스펙티브(retrospective) 패션을 생략한 것, 레트로 스펙티브 “회고의 옛것이 그리운”이란 뜻으로 1920~30년대, 40년

대, 50년대 등의 패션을 그리워하며 현대에 다시 부활시킨 룩을 말한다. 리바이벌 룩의 새로운 호칭이다.

- 로맨틱 미니멀리즘 룩(romantic minimalism) : 심플한 미니멀 스타일을 기본으로 소재, 프린트, 디테일 등에 로맨틱한 요소를 첨가한 룩.

- 로맨티시즘(romanticism) : 19세기 초 프랑스의 왕정 보고 시대의 복장에 서 볼 수 있는 여성스러운 장식적인 것(웨이스트가 훌쩍하고 작은 퍼프 슬리브나 레그 오브 머튼 슬리브의 드레스에 케이프나 피슈를 걸치고 보닛을 쓴 스타일)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프릴이나 러플, 레이스 등을 사용한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것을 총칭할 때가 많다.

- 마린룩(marine look) : 화이트, 네이비, 블랙, 레드 컬러의 스트라이프 셔츠나 세일러 블라우스 등의 다양한 아이템을 코디, 해군복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타일

- 맥시 스커트(maxi skirt) : 발목까지 오는 긴 스커트 1969년 미니스커트의 유행 다음으로 나왔던 맥시 스커트는 1970년대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 모즈 룩(mods look) : 모즈 룩(mods look)은 “modern”의 약자로 1960년대 중반 카나비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나타난 자유 분방한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일컫는 말, 비틀즈가 즐기던 “비틀즈 룩”으로 대변된다. 슬림한 재킷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매니시하고 시크한 슈트 차림이 대표적인 스타일. 샤프하고 도시적이며 매니시한 느낌이 매력적이다.

- 믹스 앤드 매치(mix & match) : 새로운 코디네이션의 방법을 말한다. 테크닉이 필요한 옷차림으로 세퍼레이츠 스타일에 재킷과 슬랙스를 각각 “색으

로 믹스 무늬로 매치, 무늬로 믹스 색매치, 무늬로 믹스 소재로 매치, 소재로 믹스 무늬로 매치” 등의 방법이 있다.

·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 : 줄로 육군 군복의 디자인에서 힌트를 얻은 스타일, 1963년 앙드레 쿠레주와 1966년 이브 생 로랑이 견장과 금빛 단추 등을 활용하여 밀리터리 룩을 보다 더 본격적으로 발전시켰다.

· 배기 룩(baggie look) : 한마디로 험령험령한 커다란 스타일을 말한다. 복식에서는 길이와 폭 모두 여유가 있고 직선 재단을 이용하여 몸에 붙지 않는 스타일의 복장을 말한다. 1970년대 중반에 등장한 배기 룩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인 힙합 스타일에서 그 컨셉을 찾을 수 있다.

· 빈티지 진(Vintage jean) : 빈티지 진이라 하면 리바이스 회사가 만들어낸 “LEVIS 501”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을 세탁하면 줄고 색이 바지며 구겨지는 데님을 사용하여 옛날분위기가 나는 빈티지 진을 복제하면서 보편화 된 용어이다. 즉 옛날 풍의 진의 부활이다.

· 셔링(Shirring) : 적당한 간격을 두고 여러 단을 박아 밑실을 당겨 개더가 여러단으로 배열된 상태의 것. 얇은 천의 옷에 응용해서 장식한다.

· 스니커즈(sneakers) : 캔버스 슈즈와 비슷하지만 밑창에 고무를 붙인 것을 말한다. 고무창이 붙어 있어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스니커라 부르는 것.

· 스트링 룩(string look) : 스트링은 실, 끈 등을 뜻하는 용어로 단추나 벨트 대신 끈으로 묶어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의상들을 스트링 룩이라고 한다.

· 아가일 체크(argyle check) : 양말이나 스웨터, 가디건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모양이 바로 아가일이다. 가로, 세로선이 만나 만든 다른 체크와는 달리 아가일 체크는 면으로 이루어진 체크이기 때문에 대비되는 독특한 색감을 즐길 수 있다. 아가일이란 이름은 스코틀랜드 서부 연안 아가일주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이아몬드 체크라고도 불린다. 특히 양말이나 니삭스, 조끼, 가디건, 라운드나 V넥 라인 스웨터 등 니트에 많이 사용된다.

· 아이비 룩(ivy look) : “담쟁이 덩굴” 이란 뜻의 아이비. 미국 동부의 8개 명문대학 건물이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어 아이비 컬리지(Ivy college)라고 부르는데 아이비 룩이란 아이비 컬리지 학생들이 입던 신사복이나 숙녀복을 일컫는 말. 교복 스타일이 많이 이용, 변형된 의미로 대학생들의 옷차림을 통틀어 아이비 룩이라고 한다.

· 어반웨어(urban wear) : “도시에 사는, 도시의” 뜻으로 도시적인 세련된 복장이나 외출복을 말한다. 현재는 비즈니스 슈트 뿐만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착용하는 복장 전체를 뜻한다.

· 에스닉 룩(ethnic look) : 원래는 세계 여러나라의 민족 고유의 복장을 의미하는 말, 에스닉풍 의상이 크게 유행하면서 요즘은 동양적인 오리엔탈 룩으로 많이 gojraehl기도 한다.

· 오간자(organza) : 얇고 투며안 평직의 옷감으로 나일론, 견, 레이온 등으로 만든다. 오건디보다 뽀뽀하고 이브닝 드레스, 블라우스 등의 가장자리 장식, 심지 등에 많이 사용된다.

· 요크(yoke) : 몸판이나 스커트 위쪽을 절개하여 기우는 덧천을 말한다. 어깨 판과 몸판의 천을 잇는 것도 마찬가지로

· 워킹 웨어(working wear) : 현대의 워킹 웨어는 스포츠 마인드에 캐주얼 분위기를 가미시킨 스타일을 말한다. 실용적이고 착용감이 좋은 스타일을 뜻한다.

· 지프 업(zip-up) : 지퍼가 있어 옷을 여미고 닫을 수 있는 형태를 “지프 업”이라고 한다. 단추나 똑딱이 대신 지퍼가 달려 있어 입고 벗기가 수월한 것이 장점이다.

· 짐백(jim bag) : 야구선수들이 들고 다니던 스포츠 백에서 유래한 짐백. 가볍고 실용적이어서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애용되고 있다.

· 퀼팅 패브릭(quilting fabric) : 천과 천 사이에 솜이나 양모 또는 우레탄 폼 등을 펴놓고 박음질한 천이다. 본래의 용도는 이불이나 침대 커버 등이었으나 요즘은 스커트나 소품 등에도 많이 응용하고 있다.

· 크롭팬츠(cropped pants) : 길이를 잘라낸 팬츠로 7부 길이 정도 팬츠의 총칭이다. 실루엣은 여러 가지이며 “컷 오프 팬츠(cut off pants)” 라고도 한다.

· 톤 온 톤(tone on tone) : 아이보리에 베이지, 황토색, 브라운, 초콜릿 색 등과 같이 동일 색상에 속하면서 명도가 다른 색끼리 매치시키는 것을 톤 온 톤이라고 말한다.

· 페전트 룩(peasant look) : 페전트는 “농민”이라는 뜻. 각 나라의 전통 농민 의상에서 힌트를 얻어 현대 패션에 응용한 스타일이다. 그 나라의 특유한 옷

감, 색, 무늬 등을 사용하고 수공예 느낌을 부각시킨다.

· 포크로 룩(forklore look) : 포크로란 “ 미속적인, 민속풍”이라는 뜻, 에스닉하고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스타일을 포크룩 이라고 한다.

· 풀오버(pullover) : 머리부터 입는 스웨터의 모든 종류를 칭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풀오버라 하면 목까지 올라오는 스웨터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 풀 스커트(full skirt) : 타이트 스커트와 대조적으로 쓰이는 말로써 도련의 폭이 넓고 여유가 있는 스커트의 총칭이다.

· 프록코트(frock coat) : 남성용 예복의 하나로 보통 검은색이고 저고리의 길이가 무릎까지 오는 코트

· 프린지 fringe) : 햄 라인이나 디테일에 사용되는 술 장식. 올을 빼거나 가죽에 절임을 넣어 만드는 경우가 많다.

· 피코트(pea coat) : 더블 브레스티드로 된 길이가 짧은 스포티한 코트 영국 해군의 선원용 코트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좌우 어느 쪽으로나 여밀 수 있게 된 박스형 코트